

미국, 전략비축유 방출 시사

에너지차관보, 계속 검토 ... 미국 비축규모 3억4900만배럴

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찰스 매키넬 화석 에너지 담당 차관보 대행은 3월27일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전략비축유 방출 문제가 계속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관리는 “국제유가 안정 방안의 하나로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가 불변”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 장관도 최근 “전략비축유 방출이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3월27일 별도기사에서 자체 조사를 토대로 미국의 석유 비축이 6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비축유가 3월23일까지 7일간 270만배럴로 0.8% 증가해 3억4900만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만의 날씨가 좋아져 그동안 중단됐던 원유 하역이 재개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8>